

# 만남

# 02

2020

통권 553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 영락 지금



### 2020 신년기도회 ... “하나님과 늘 접촉해 새 힘 충전하세요”

2020년 신년기도회가 1월 1~3일 수유리 영락기도원에서 열렸다. 새벽과 오전, 저녁기도회로 매 시간 찬양과 말씀, 기도로 드려진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서 성도들은 복된 한 해가 되길 뜨겁게 간구했다. 3일 마지막 집회 오전 기도회 설교를 맡은 김운성 위임목사는 ‘접속(신 34:9~12)’이란 제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접속된 모세의 삶처럼 기도로 회막을 준비함으로써 하나님과 늘 접촉하여 거룩한 힘을 충전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취재 김경옥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 표지설명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려는 마음을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손으로 나타냈다.

그림 김옥순 권사

####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 4대 목표

교육  
선교  
성도의 교제  
봉사

교회표어

이때를 위함이라(에스더 4:13~14)

# 만남

## CONTENTS

### 이달의 말씀

이때를 위함이라! | 김운성 02

### 영락칼럼

비로소 그리스도인 | 박지운 04

크리스천 청소년의 영육 간 건강 | 박용천 06

가나안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 이경선 08

### 다음 세대

교육부의 다음 세대 사역 소개 | 백성우 11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 권혜빈 13

베드로부는 사랑입니다 | 우정미 15

지친 고3의 에너지이저 | 김범규 17

학생회 예찬 그리고 감사 | 장예준 18

찬양대가 좋아요 | 김현서 19

### 땅끝까지 이르러

뉴코리아국제학교에서 배우다 | 박성수 20

대학부 선교팀의 지난 3년을 돌아보며 | 이두희 22

### 영락의 울타리

교회 홈페이지가 새 단장을 했어요! | 김호진 24

장년 신앙 성장을 위한 필수과정 | 김홍범 26

내 기도 들어주는 주님 | 장승연 30

끝없이 부족합니다 | 김경희 32

따르릉! 영락의 전화입니다 | 김은경 34

### 야곱의 우물가

감사함이 넘쳤던 전도폭발훈련 | 이하은 36

30년 만에 결실맺은 전도 | 김경애 38

전도의 꿈 키워주신 하나님 | 석소연 40

### 교회소식

새가족 환영 / 유아세례 43

신년예배, 임직식 겸해 드려 등 외 45

2020년 목회 분담표 50

2020년 신임교역자 프로필 52

2020 제직부서 신임 차장 53

작가노트 54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55

2월 목회력 / 편집장 레터 56

### 2020년 2월호 통권 553호

발행 2020. 2. 1.

발행인 김운성

편집인 정경섭

편집위원 이동훈 박선이 김갑수 김경옥  
김혁태 나광호 우대권 이준영  
임대현 장덕진 정용성 최윤미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주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전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디자인 편집회사 도인



김 윤 성 위임목사

‘이때를 위함이라’는 올해의 표어로 출발한 2020년도 두 달째를 맞이합니다.

이 표어는 구체적 행동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 ‘119대작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름이 조금은 유치해 보일 수도 있겠으나, 그 배후에는 자못 비장한 각오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전쟁(戰爭)하듯’으로 표현하는 일이 많습니다. 사는 것을 전쟁이라 표현하는 ‘생활전선’이란 말도 있습니다. 스포츠도 전쟁처럼 표현하는데, 일본을 상대하는 축구를 ‘일본전(戰)’이라 말합니다. 이 시대의 어린이들은 잘 모를 수 있겠습니다만, 50·60대 이상의 사람들은 뒷골목에서 전쟁놀이하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실제로 이 땅에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전이 아닌 아직 휴전 상태의 한반도가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해 오히

## “이때를 위함이라!”

### – 119대작전을 시작하며

려 전쟁의 냄새가 짙어지고 있어 모두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쟁은 두려운 것이면서도 익숙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당연히 치러야 할 전쟁을 회피하고 있기도 한데, 그것은 사단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악의 영들과 싸운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상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2020년 영락교회 성도들이 거룩한 영적 전쟁을 치러 승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119대작전’이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이기도 합니다. 올해 이때를 위함이란 영적 목표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차원에서 전 성도님들이 119대작전에 참여하길 호소합니다.

이 작전의 목표는 첫째, 우리 자신의 변화입니

다. 둘째, 우리 주변을 위한 섬김입니다. 이를 위해 자신을 위한 행동 목표 세 가지, 주변을 위한 행동 목표 세 가지, 총 여섯 가지의 목표를 정합니다. 여섯 가지를 정하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일들을 정하면 됩니다. 소극적으로는 끊을 것을 끊고, 버릴 것을 버리는 목표,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행하려는 목표들을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여섯 가지를 구체적으로 실천했는지 매일 확인해 승·패·비김을 판단합니다. 여섯 가지 중에서 네 가지 이상 실천한 날은 ‘이긴 날’입니다. 영락의 전 성도들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적어도 백만 승 이상을 거두어 교회는 영적으로 부흥하고, 개인은 더욱 성숙하길 기대합니다.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기에 날마다 말씀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암송하고 묵상하며, 또 기도대각성 당시처럼 예배당을 열어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신의 영적 상황을 체크함으로써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 일을 119대작전이라 부르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시작하는 3월 6일(금)부터 7월 3일(금)까지가 총 119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발발한 6월 마지막 주간에는 한국 교회가 연합으로 영락교회에 모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3일간 금식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밖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에스더가 유대 민족을 위해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온 유대인들이 3일간 금식한 것처럼, 우리도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영락교회 예배당에 초교파적으로 모여 기도

하고자 합니다. 이 거룩한 일을 위해 119일 동안 사용할 말씀 등을 담은 쿠폰북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하루 한 장씩의 쿠폰을 뜯어서 휴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를 위함이라’는 표어는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던 사람은 깨어 일어나고, 주저앉아 있던 사람은 용기 내어 일어나고, 방황하던 사람은 목표를 발견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체적 상황에 믿음으로 응답함으로써 우리 삶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해 영락교회가 영적으로 더 충만해질 것을 기대합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구체적인 영적 체험을 하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영락교회는 점잖은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119대작전이란 표현 자체가 조금은 영락교회 성도들에게는 유치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습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제시되고, 구체적으로 내용이 선포될 때,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모 장로님께서 “영락교회 강단은 한국 교회의 교과서”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말씀입니다. 영락교회가 한국 교회의 표준이라는 말씀입니다. 영락교회가 잘하면 표준이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구체적으로 이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함으로써,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기대합니다. 2월에 잘 준비해서 3월 6일에 작전을 개시합니다. 부디 사단의 역사가 굴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만남**



## 비로소 그리스도인

생명대각성 운동을 결산하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영(Spirit)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함이 정확할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익숙한 명칭은 초대교회가 시작되고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야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안식일이 아니라 그 이튿날, 즉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에 모여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유대와 구별되는 기독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까지도 이들에 대한 지칭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1장에 이르러서 안디옥교회가 개척되었을 즈음, 즉 복음의 중심이 예루살렘교회에서 안디옥교회로 옮겨가기 시작할 즈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갖게 됩니다.

안디옥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 소아시아와 유럽 등으로 선교를 하게 된 선교 중심적 교회입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는 것은 여러모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모든 일상에서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박지운 목사  
전도부  
고양·파주교구

##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2019년 9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 120여 일 동안 영혼을 살리는 ‘생명 대각성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리하여 104일째인 12월 15일 최초 목표였던 1,000명을 달성했으며, 최종 1,176명의 전도 대상자가 영락교회를 방문해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다양한 간증의 이야기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한 영혼이 예배당으로 발을 내딛기까지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해 주신 영락의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생명대각성운동 기간에 주일마다 베다니광장의 부스를 지키며 사랑으로 환영하며 섬겨주신 전도부 임원단과 각 교구 실행위원들의 다함없는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1,000명 달성을 기념하는 전 교인 헌혈 운동을 통해 기증받은 헌혈증을 소아암센터에 전달했습니다. 한 명의 아이가 치료받는 데 300여 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헌혈증 한 장 한 장에 쓰인 기증자 이름을 보며 환아 가족이 감격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영락교회에 감사한다는 인사를 전해 들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19 생명대각성운동은 작년 말로 일단락 났지만, 생명을 살리기 위한 우리의 수고는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뿌린 많은 씨앗은 결코 헛되지 사라지지 않고 때가 이르렀을 때 무성한 열매로 맺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두 서로 독려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영락교회 온 가족 되기를 소원합니다. **만남**

# 크리스천 청소년의 영육 간 건강

## 교회 오빠와 참기

‘교회 오빠’라는 단어가 있다.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더 많은 것 같아 다행스럽고 요즘 보기 드문 기특한 사람이라는 칭찬으로 여길 수 있다. 우아하고 평화스러워 보이는 호수의 백조도 사실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를 쳐야 하듯, 참하고 성실해 보이는 교회 오빠들도 나름대로 애환이 있다. 하지만 그걸 누구와 의논하거나 그런 내색을 하기는 익숙지 않다. 속상하거나 화나는 일이 있어도, ‘나는 크리스천’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저 참아야 하는 것이 유일한 대처 방식일 때가 많다.

## 청소년 스트레스

스트레스의 강도가 심할 때는 어린 나이라도 영육 간에 병이 생긴다. 자율신경의 밸런스가 무너



박용천 집사  
강동·송파교구  
한양의대 정신건강의학과

져서 신체적인 병이 생길 수 있고, 정신적으로 불안, 우울, 강박증, 공황장애 등은 물론 자해나 자살까지 생각한다. 요즘 유행하는 우울증이라는 병도 내면을 분석해보면 결국 스트레스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속에 쌓아두었다가 임계점을 넘으면 여러 가지 증상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다. 과거에는 애들이 무슨 우울증이냐고 했는데 청소년 자해, 자살 등의 문제가 등장하니 이제야 청소년의 우울증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다. 어쨌건 요즘 청소년들의 우울증에 대해 사회가 관심을 두게 된 것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

## 사랑과 미움이라는 감정

우울증은 적개심이 부메랑처럼 나에게 방향을 틀어 들어올 때 생기는 현상이다. 그래서 우울증을 이해하려면 적개심, 즉 미움에 대한 정체를 파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랑과 미움은 동전의 양면이다. 사랑이 깊을수록 미움 또한 깊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의 미움의 대상은 누구일까? 동전의 예처럼 그것은 사랑의 대상과 동일하다. 청소년들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일까? 얼핏 생각하면 주변의 친구들일 수 있지만 실은 지금까지 함께 살아온 부모가 사랑의 대상이다.



## 못되게 굴고 말썽 부리는 나를 사랑해주시기에...

그래서 TV에서 누구나 부모 얘기를 할 때 눈물부터 나온다. 누군가 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하면 그 주변은 온통 눈물바다가 된다. 부모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며 안심하고, 부모님이 안 계신 이는 그분들을 그리워한다. 이것이 일상의 이야기지만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자.

### 설마 내가?

부모님 생각을 하면 왜 감정이 북받칠까? 일단 사랑만 해주던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이 넘쳐서다. 그게 끝일까? 아니다. 주신 사랑에 대한 고마움의 범위는 다양하다. 내가 잘해서 사랑해준 것도 있지만 내가 못되게 굴고 말썽을 부렸는데도 나를 사랑해주니 더 고마운 것이다. 못된 나를 계속 사랑해주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미안해서 눈물이 더 난다. 그럼 나는 왜 못되게 굴고 말썽을 부렸었나? 부모에 대한 반항심 때문이었다. 그 반항심을 가졌을 때 부모님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졌던 것일까? 받아들이기 싫겠지만 바로 미움이다. 부모에 대한 원망이 바로 미움이다. 그러면 미움의 크기는 어느 정도였을까? 사람마다 인정하는 정도가 다르다. 완곡하게 말해서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하는 생각을 한 번 정도는 해보지 않았을까?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죽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그런데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리 흔치 않을 것이다. 더구나 남에게 그런 얘기는 절대 할 수 없다.

### 나는 이미 죄인

하지만 이것을 인식하든, 못 하든 누구나 다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일이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그런 경험을 못 했을 뿐이다.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가 나의 신앙고백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아차린다. 그런 죄인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자신의 귀한 아들을 대신 희생시키신 것이다. 이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

### 건강하게 살기

이렇게 미움의 정체가 드러나면 햇볕에 안개가 없어지듯 미움이 사라지고 나를 향한 미움으로 인해 생겼던 우울증도 없어지고 감사함과 함께 마음의 평온이 찾아온다. 이렇게 되면 밸런스가 무너졌던 자율신경은 스트레스로 인한 자극을 받지 않게 되어 안정을 찾게 된다.

하지만 이런 감격이 한 번의 경험으로 평생 유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항상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점검해야 한다. 이런 점검을 게을리하면 신앙이 쉽게 느슨해지고 스트레스에 무너지기 쉽게 된다. 그래서 진부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늘 점검해야만 영육 간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만남**

## 가나안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2017년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발표에 따르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가나안’ 성도는 2012년 10.5%에서 2017년 23.3%로 12.8%포인트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한국복음화협의회가 조사한 대학생 대상의 설문에서도 신앙을 가진 대학생 중 28.3%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있어 젊은 세대의 가나안 성도 증가 추세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란 교인이지만 지역 교회(제도 교회)에 나가지 않는, 즉 ‘안 나가’는 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물론 이러한 분들은 그 이전에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성도라는 주제가 오늘날의 한국 교회에 있어서 큰 이슈로 떠오른 것은 지역 교회에 속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영위하려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의 가나안 성도는 지역 교회에 나가기를 중단하고 자기 의지로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교회에 나간다는 것을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던 한국 교회에서 교회 밖으로 나가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주장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가능하다는 주장 가운데 그러한 신앙 형태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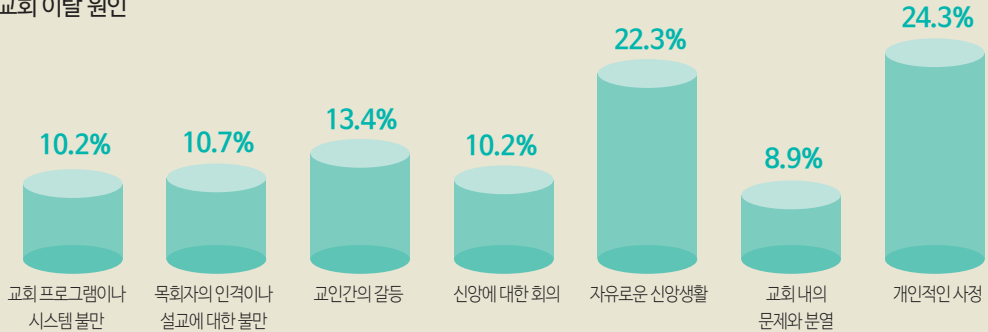


이경선 목사  
대전 유일성결교회  
국제전도훈련원 편집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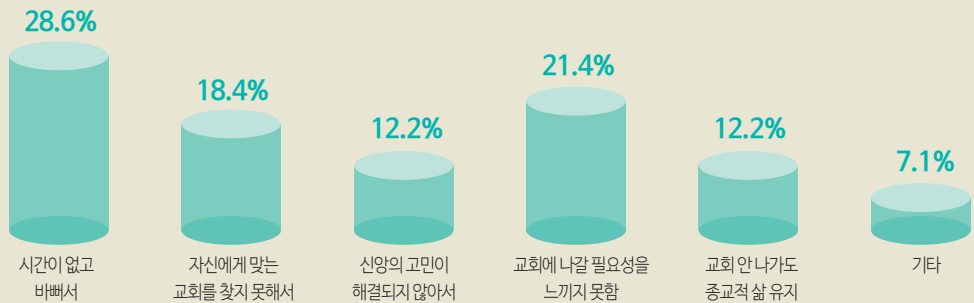
### 가나안 성도의 발생 원인

가나안 성도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통계에 따르면 교회적 원인과 개인적 원인이 반반으로 나타납니다. 교회 안의 갈등이나 문제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와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다거나 자유로운 신앙

### ▶ 교회 이탈 원인



### ▶ 교회 불출석 이유



생활을 위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성도들에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을 때 ‘교회 출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과 ‘교회 출석을 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사람들이 33.6%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스트모던 사회의 사람들은 어딘가에 소속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보다는 의심하고 느끼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한다”라는 마틴 앳킨스(Atkins)의 말처럼 교회에 소속되는 것보다 스스로 신앙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을 더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의 형태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혹자는 교회 자체의 문제 때문에 가나

안 성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출석 욕구가 점점 사라지는 이유를 반드시 사회적인 흐름이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나안 성도의 50% 가까이 되는 교회 문제 때문에 떠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타락은 일반 매체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보도될 정도로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한국 교회의 현실이 포스트모더니즘 성향을 더욱 부채질하여 교회 출석 욕구를 점점 사라지게 하면서 가나안 성도의 발생을 더욱 부추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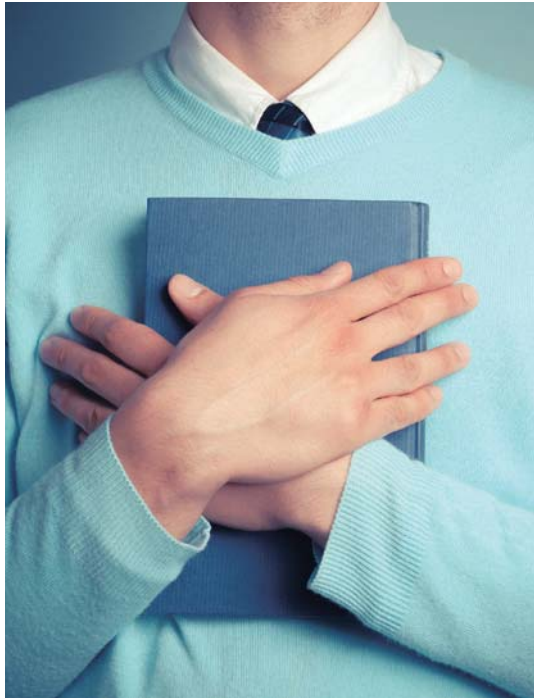
## 가나안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교회 소속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요?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했을 때 그들이 떠난 교회는 지역 교회, 제도 교회이지 우주적인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기에 그들을 여전히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과 교회 역사에서는 지역 교회(공동체) 소속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러한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지역 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 중에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매우 적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회를 떠난 후 시간이 지날수록 가나안 성도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점점 무종교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역 교회를 떠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성도들에게 무조건 교회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도 떨어지고 비효율적이라는 것도 통계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가나안 성도들을 향한 무조건적 비판이 그들을 교회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나안 성도들을 직접 만나고 가나안 성도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느끼게 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어려움에 대한 안타까움과 교회를 떠나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모습을 아파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가나안 성



도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비판 가운데 가나안 성도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도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가나안 성도들에게 무조건 교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설득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들이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어려움과 갈등들을 이해하고 품어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 준다면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020년에는 한국 교회가 가나안 성도들을 더 방치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섬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만남**

## 2020년 교육부 다음 세대 사역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교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10여 년 전부터 영락교회가 앞장서서 다음 세대 사역의 중요성을 한국 교회에 일깨우고 실제적 변화를 위해 애쓴 결과,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 다양하고 실제적인 교육 사역에 관한 변화를 이끌어 온 점입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는 하나님께 감사함과 함께 이를 위해 온 교회와 성도, 당회와 제직들이 노력해 오셨음에 다음 세대 사역자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국 교회의 내일을 꿈꾸고,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계속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변화의 물꼬 위에 위임목사님의 지도 아래 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에도 영적 에너지가 더욱 불어 넣어지고 있어서 또 감동이고 감사입니다. 우



백성우 목사  
교육전담

리의 노력 안에 머무는 교육 사역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는 성령의 역사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생명을 꿈꾸는 본질적인 에너지가 채워져 감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의 교육부는 온 교회와 함께 '이때를 위함이라'는 영적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 합니다. 특히 2020년도 교육부는 '개인마다의 돌봄(personal touch)' 사역을 강화하려 합니다. 점점 더 '개별화된 개인'이 되어 가는 사회와 문화 속에서, 한 영혼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손길(기도·만남·소통·돌봄)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입니다. 한 영혼을 끝없이 찾아다니셨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본받아 '한 영혼의 마음을 만져주는' 교육 사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지금은 위기의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봐야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있어서 신앙의 위기는 더 심각합니다. 초·중·고교 학급에 예수님을 믿는 아이가 손에 꼽을 정도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따돌림을 당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젊은이들은 기존 교회에 실망해서 떠나기도 하고, 신앙이나 종교 자체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해 떠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빛은 분명히 빛인지라, 이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의 빛을 다시 비추는 삶으로 헌신하여 선다면 하나님은 다음 세대 안에서도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특히 다음 세대 교육에 임하는 각 지체가 ‘이때’ 각자의 삶을 통해,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에 응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기도하며 사역하고자 합니다.

75년 동안 한국 교회 안에서 먼저 섬김을 감당했던 영락 교우께서 영적, 신앙적 위기의 ‘이때’ 다시금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지원하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만남**

- ◇ 우리의 어머니들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 자녀를 구하여 응답받았던 한나처럼(삼상 1장) 기도하는 어머니, 하나님께 자녀를 온전히 드리는 어머니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 ◇ 우리의 아버지들이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삿 13:12) 되묻고 또 되물으며 기도로 간구했던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처럼 영적 교육의 주체가 되는 아버지 되기를 기도합니다.
- ◇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비록 작은 아이일지라도,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삼상 3:9)라며 응답했던 어린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때에 듣고 응답하는 어린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 ◇ 우리의 청소년들이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삼상 17:45) 외치며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던 청소년 다윗처럼,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담대히 서는 청소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 ◇ 우리의 청년들이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주 앞에 나아와”(시 110:3),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며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음으로” 이 시대에 주께서 귀하게 쓰시는 “거룩한 그릇”(딤후 2:21~22)으로 준비되기를 기도합니다.
- ◇ 우리의 교사들이 “들은 바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딤후 2:2)하는 복음의 교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 ◇ 영락의 가정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를 위해 “부지런히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며, 예배하는 바”(신 6:5~9) 주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 ◇ 우리의 어르신들이 이 모든 일이 이뤄지기를 위해 “주 앞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리라”(삼상 12:23) 다짐하며, 기도로 신앙공동체를 품고 살려낸 노년의 사사 사무엘처럼 기도로 다음 세대 신앙공동체를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 ◇ 우리 교역자들은 민족의 위기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이다”(에 4:16) 기도와 금식으로 헌신하며 나아갔던 에스더처럼,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 헌신해가기를 기도하고 다짐합니다.



##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19~20).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지상명령입니다. 원어로 보면 이 말씀 중 명령형은 ‘제자로 삼으라’는 것뿐이고, 나머지는 이를 수식하는 분사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CebC는 ‘Children’s English Bible Community’의 약자입니다. ‘어린이들이 영어로 성경을 배우는 공동체’라는 뜻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이 주일 오후 교육관 4층에 함께 모여 영어로 예배드립니다. 사람들은 영어에 초점을 두지만 사실 저희 부서의 우선순위는 성경입니다. 영어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현재 그의 제자인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CebC 예배에 처음 참여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당황합니다. 그들 중 다수는 영어와 친숙하지 않고, 모르는 언어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CebC 예배는 빠른 리듬의 흥겨운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찬양팀을 담당하는 선생님은 아이들의 흥을 깨우고 함께 춤추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잘 모르는 언어이지만 노래로 함께 즐기다 보면 어느새 아이들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을 느낍니다.

설교 시간 또한 특별합니다. 때로는 역할극으로, 또 때로는 게임을 하며 아이들이 무대에 올라오는 등 적극적인 설교 참여자가 됩니다. 열심히 손들며 참여하다 보면, 이곳이 영어로 예배드리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잊기 마련입니다. 아이들이 CebC에 조금씩 동화됩니다.

반별 공부 또한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CebC 선생님들께서는 숭한 고민 끝에 4개의 특별반을 고안해냈습니다. ‘기초 영어 성경반’ ‘CebC Times반’ ‘미디어반’ ‘성경 쓰기반’입니다. 2020년에는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는 반에 지원



권혜빈 전도사  
CebC



주일 예배시간에 율동을 하고 있는 CebC 찬양팀



Sports Day에 즐거워하는 CebC 아이들

하면 1년간 그 반의 특색에 맞는 활동을 영어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CebC는 비교적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지닌 부서이므로 선생님들은 이러한 이점을 잘 활용합니다. 어떠한 형식의 예배와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성경과 영어를 더 잘 알아가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두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리신 지상명령은 많은 사람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더 편한 삶을 살기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영어를 배우고자 합니다. 하지만 CebC는 영어가 지상명령 성취를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노력합니다.

이곳은 아이들의 영어 학업 능력을 증진하는 학원의 기능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저 달란트를 가진 선생

님들의 헌신이 모여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어린이들에게 전하는 부서일 뿐입니다. 특별한 점이 있다면 영어와 조금이라도 친숙해질 수 있는 환경을 아이들에게 제공한다는 것과 영어로 복음을 선포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커서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 언어가 그들에게 장애가 되지 않도록 임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CebC의 역할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진 복음의 씨앗이 영어라는 수단을 힘입어 많은 열매를 맺는 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만남**

## 베드로부는 사랑입니다

우다다다.

예배를 마치고 봉사관 지하 매점의 자리를 사수하는 것은 초·중·고등부 내내 매주 일어났던 주일 아침의 루틴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같은 반 친구들은 다닥다닥 낮고 네모난 테이블과 의자에 모여 금방 찢 계란과 곰보빵 그리고 따뜻한 우유 한 잔에 오손도손 장난치던 참 따뜻했던 공기를 기억합니다.

1990년 고등부를 졸업한 이후 더는 봉사관 지하 매점으로 뛰어가지 않게 된, 대학을 떨어진 매점 멤버들은 교회 주변을 서성거리며 주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인가 한 멤버의 아버님이자 고등부 선생님인 김승길 집사님께서 저와 3명의 매점 멤버들이 자주 앉았던 본당 2층 계단 뒷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마치고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주시며 준비하신 출석부에 이름을 적어 기도해주시던 그분의 따뜻했던 보살핌의 기억이 베드로부 1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우정미 집사  
종로·성북교구  
베드로부 교사

철없던 대학부를 지나고 흔들리고 갈 곳 없던 청년 시절, 다시 영락 청년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박창운 청년부 목사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흔들리는 인생이 아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해지고 새롭게 다듬어져서 높아지려 했던 나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으로 영적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렇게 다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하는 믿음의 훈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청년의 때를 말씀의 위로와 감사로 채워가는 따스하고 따뜻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부 30주년 기념예배





베드로부 30주년 기념행사 이모저모



2006년 주일 아침 교회 마당에서 우연히 김승길 집사님과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와락 안기던 저에게 “정미야, 널 위해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어. 요즘 어찌 지내니?”하고 물으셨습니다. “네, 저는 청년부에 있어요. 그런데 교사 교육을 마쳐서 어디로 가야 할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 그럼 베드로반으로 오면 되겠다!” “혹시... 아직도 있어요?”

그다음 달부터 시작된 베드로부의 시간입니다. 대학 입시 실패로 인해, 지금의 방향이 괜찮은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버거운 시간을 지나는 첫 번째 광야를 걸어갑니다. 홀로 걸어가는 것 같은 광야에서 베드로부를 함께한 선배들, 선생님들,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역자 분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기도가 조금씩 바뀌며, 하나님을 바라

보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짐을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로 세워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베드로부 모두의 공동체로 이어지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많이 아끼고 사랑하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일입니다. 어릴 적 누렸던 봉사관 지하 매점의 따뜻한 공기처럼... 본당 2층 뒷자리에서 기다리며 따뜻하게 불러주고 보살펴 주셨던 시간처럼... 예배와 말씀으로 새롭게 다듬어져서 높아지려 했던 나를 버리고 감사로 따뜻하게 채워지는 삶으로 가꿔가기를... 그러기에 여전히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주세요.

광야를 걸으며 주님만이 내 도움이시고 주님만이 내 친구 되는 믿음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움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며 하나님 나라를 가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도합니다. 서른, 다시 주님 앞에, 하늘의 구름을 따라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 봐요. 모두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임마누엘. **만남**

## 지친 고3의 에너지이저 영락고등부



고등학생이 되기 전까지 저는 교회에 거의 다니지 않았습니다.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그저 “교회 다녀라”는 어머니 말씀을 따르기엔 저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집과 가까웠던 초등학교, 중학교와 달리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고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낯선 환경과 더불어 처음 보는 친구들, 그전까진 겪지 못했던 입시 스트레스까지 겹치며 나날이 지쳐가던 저에게 교회는 일주일간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는 기댈 곳이 되었습니다. 고등부 예배와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제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낯을 많이 가리고 소심했던 저는 사촌 누나의 권유로 들어간 워십댄스반에서 여러 친구를 사귀고 무대에서 춤을 추며 차츰 바뀌어 갔습니다.

학년이 올라가서도 교회 생활을 쉬지 않았고 수련회 조장, 학생회 등 활동의 폭을 넓혔습니다. 물론 그 과정

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활동하며 종종 발생한 문제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들을 해결해가면서 이전과는 달라진 저를 발견할 수 있었고, 이런 경험을 통해 더욱 성숙해지고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3학년이 되어서는 학업 때문에 토요일에 교회에 나올 수 없게 되었고 정들었던 워십댄스반을 떠나 이삭줍기반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2년간 워십댄스반 소속이었던, 심지어 총무까지 했던 제가 워십댄스반을 떠나 다른 부서에 들어가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줍기반에 들어가기 전 많은 걱정을 했으나 막상 들어가니 걱정들이 무색해질 만큼 금세 이삭줍기반에 녹아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선생님들부터 학생들까지 워낙 구성원들이 완벽했기 때문에 쉽게 녹아들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삭줍기반이라는 좋은 부서 덕에 저는 교회에서의 고3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3년간 고등부에서의 생활은 학업과 세상살이에 지친 저에게 다음 한 주를 살아갈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3년간 저를 이끌어준 선생님들과 교역자 분들, 그리고 저에게 힘이 되어준 친구들과 후배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비록 저는 대학부로 올라가지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고등부와 함께 하시길 축복하며 더 좋은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만남**



김범규  
대학부  
고등부 리더

## 중등부 학생회 예찬 그리고 감사



안녕하세요. 2019년 중등부 학생회장을 지낸 장예준입니다. 2019년 한 해는 참으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1년 동안 학생회에 몸담으면서 단지 중등부 소속으로만 있었으면 겪지 못했을 다양한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학생회’ 하면 딱 떠오르는 일이 있습니다. 주일마다 1부, 2부 시작 전에 ‘오아시스’를 나눠 주는 일입니다. 사실 학생회 처음 들어와서는 ‘내가 이걸 왜 하지?’라는 생각으로 가득찬 채 나눠 주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일찍 교회에 와서 나누어 주는 것도 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가 비록 작은 일이지만 이것도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후 (몇 번 빼먹은 적도 있었지만)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학생회가 주일마다 하는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배를 마친 뒤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QT 시간을 끝내면 학생회는 책상보를 걷고 책상을 정리합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먼저 나서서 할 수 있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학생회를 하면서 참 좋았던 점은 아침 QT 모임입니다. 최근 들어 참여 학생이 줄기는 했지만, 아침마다 일찍 와서 선생님과 QT를 하고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른 아침이라 좀 졸리긴 했지만, 선생님과 기도를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특별 행사로는 ‘달 사명 프로젝트’가 기억에 남습

니다. ‘달걀을, 사랑을 싣고 명동으로’라는 행사였습니다. 부활절 아침 우리 중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달걀을 들고 명동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 기쁨을 전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선뜻 다가가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먼저 다가가시는 모습을 보며 저도 조금씩 용기가 생겼습니다. 거절당하기도 했지만, 굴하지 않고 계속 도전해서 예수님의 부활 기쁨을 나눴습니다. 계속하다 보니 예수님의 부활 기쁨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1년 동안의 학생회를 통해 서로 사소한 것에도 웃어 주고 고민도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며 어려움을 해결해나갔던 일들을 떠올리면 참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언제나 도움 주시고 영적인 지식을 쌓게 해주신 선생님들이 계셔서 감사했습니다. **만남**



장예준  
고등부 1학년

## 찬양대가 좋아요



초등1부에서 찬양대를 하고 있는 김현서입니다.

저는 유치부 때부터 5년째 찬양대를 하고 있습니다.

찬양대 친구들을 보면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시켜서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유아부 때 어린이주일 교회 마당에서 가운을 입고 찬양하는 언니, 오빠들을 보고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 찬양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찬양대 하는 건 좋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늦게 일어나서 지각도 많이 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힘들면 그만둬도 된다고 하시며, “네가 찬양대를 그만두면 우리 식구 모두 늦잠 자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유년부는 유치부보다 더 이른 시간에 연습을 시작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언니, 오빠들과 함께 본당에서 ‘연합찬양’을 했을 때와 베다니홀에서 ‘리틀스타’ 찬양제를 했을 때는 보람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떨리기도 했지만, 부모님께서 “사람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생각하라”고 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한번은 선생님께서 “기도송이나 축도송은 매주 똑같지만, 그럴수록 더욱 중요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음부터 저는 특히 기도송이나 축도송을 할 때는 더욱 집중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찬양대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찬양은 ‘예수님처럼’입니다. 이 찬양은 어느 날 예수님이 나에게 와서 용서해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같이 먼저 용서하고 손을 내밀어주라는 가사입니다. 이 찬양에서 가장 좋았던 구절은 “예수님 말씀 따라 먼저 사랑할래요.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입니다.

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2학년 때 친구들과 중창을 했던 일입니다. 처음에는 많이 떨리기도 했고 추가 연습도 힘들었지만, 옆에서 칭찬해 주시는 부모님과 선생님들 덕분에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찬양대를 하면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좋은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친구가 찬양대를 하면 좋겠습니다. 찬양대를 하면 찬양도 많이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도 더 많이 하게 되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처럼 먼저 손 내밀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만남**



김현서  
초등1부



## 영어는 기본...베룩의 삶까지 뉴코리아국제학교에서 배우다

안녕하세요

먼저 영락교회 안에서 분단을 허물고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3년 전에 한국에 입국하여 직장을 다니다가 공부하  
고 싶어서 여명학교에서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기 힘들어하는 저에게는 문제 풀기와 단어 암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하지만 학업의 중요성과 영어가 우리 생  
활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깨달은 저는 영어 공부를 하지 않  
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영어를 무척이나 배우고 싶어 한  
다는 것을 알게 된 영락교회 성도 분께서 저에게 뉴코리아  
국제학교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국제학교에 다니면서 저의 영어 실력은 처음과 다르게  
많이 발전했습니다. 영어 교육 이외에도 많은 사랑과 배려  
를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 먹을 수 있도록 간식과  
차를 항상 준비해 주셨고 저녁 식사마다 다양한 메뉴를 준  
비하셔서 입맛에 맞춰주려 애쓰셨습니다. 공부하면서 쌓



박성수  
뉴코리아국제학교 학생

인 피로를 풀 수 있도록 연극도 관람하게 해 주셨고, 교장  
선생님과 권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들께서 항상 미소 띤  
얼굴로 힘내라고 격려해 주시며 식사 시간을 즐겁고 풍성  
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랑을 받으며 희미하고 발전 가망이 없어  
보이던 영어를 4개월 남짓 꾸준히 공부하며 지속적으로  
실력 향상할 수 있는 기초와 가능성을 확보했습니다. 교재  
부터 식사, 수준 높은 대학교수님과 원어민 선생님께서 구  
성된 교수진은 일반 학교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또 우리의 학습과 정착 생활에서 어려운 점, 진로 결정에  
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심정을 헤아려 학



사진 두 번째줄 왼쪽 첫 번째가 필자

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진로 특강은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가능한 일임을 다시 느꼈습니다. 먹기 좋게 고기를 뜯어주시던 권 사님, 학생들과 격의 없이 티타임도 마련해주신 교장 선생님, 잘하고 있다고 응원해주신 전도사님들과 권사님들 덕분에 저희는 언니·오빠·동생 하며 사이좋은 관계로 지내면서 서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고 도와주며 재미있는 학교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려오는 졸음과 집중력 부족 때문에 교수님의 설명을 흘려들은 일이 부지기수였고 결석도 두 번이나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통해 염치를 뒤로하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it's very nice of you'를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이정만 교수님과 Lewis, Els 선생님께 감사와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교수님은 시간 오차 없이 교실에 들어와 주셨고 흥미진진하게 수업을 이끌어주셨습니다. 끈기와 꾸준함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Lewis, Els 선생님은 재미있는 게임도 하면서 수업을 지루하지 않게 진행하셨고, 소통의 어려움에도 불편한 기색 없이 수업해 주셨습니다. 이런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모습은 제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게 했고 그 끝에 무엇을 새겨야 할지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저는 국제학교에서 영어를 배웠지만 나눔과 베푸는 삶도



배웠습니다. 통일을 염원하시고 사랑을 베푸는 것을 낙으로 삼으시며 약한 자 돕기에 인색하지 않은 영락교회 성도분들, 그 밖의 뜻 있는 분들의 정성어린 헌금으로 국제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저는 보답할 것입니다. 어떻게 베풀고 나누는지를 직접 체험한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공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영어 배움의 두려움을 버리고, 잘 안 들리면 수십 번 반복해 듣고, 독해가 안 되면 이해할 때까지 파고들겠습니다. 이 과정을 극복해야 제가 받은 사랑을 복讎에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국제학교 학생들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세상에 알리고 민족의 숙원인 통일에 이바지하는 글로벌리더가 되겠습니다. 자식같이 대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말에 하시는 모든 일 모두 마무리 잘하시고 언제나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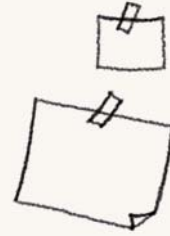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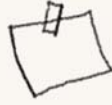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만남**

#### 뉴코리아국제학교

뉴코리아국제학교(교장 서상현 장로)는 북한선교부 소속으로 자유인(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영어학교로서 대입준비생 및 대 학생에게 영어교육, 논술특강, 독서토론, 특강 등을 통해서 자유인들이 한국사회에 잘 정착하도록 지원하며, 신앙교육 및 영어 교육을 통하여 크리스천 글로벌리더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매주 화, 목, 금 오후 6시부터 9시 30분까지 1년 2학기제로 운영되며 2020년 3월 3일(화) 제18기 입학식 예정

## 대학부 선교팀의 지난 3년을 돌아보며



2017년 1월 대학부의 선교팀 지도위원을 맡고 나서 어느덧 3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대학부는 2017년 2월 인도(정연수 선교사), 8월 인도네시아, 2018년 2월 잠비아, 8월 필리핀(김춘자 선교사), 2019년 8월 베트남(고재영 선교사)을 방문해 선교 봉사를 했습니다. 올해는 2월 3일부터 16일까지 이스라엘과 요르단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대학부 선교팀 지도위원으로 보고 느꼈던 좋은 점, 아쉬운 점, 바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선교비전트립을 통해 대학부가 얻는 좋은 점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학부의 많은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됩니다. 대학부 지체들 가운데 대다수가 모태신앙인 그들은 부모님을 따라 어려서부터 교회에 출석해 다소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부흥 집회를 하거나 수련회를 할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결단의 시간에 대학부 일부 지체들이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놀라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지체들도 선교팀에 지원한다는 사실과 그러한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삼는 계기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선교지의 현지인을 만나는 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하는 계기가 되어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해집니다. 우리는 선교지에 갈 때 많은 후원 물품과 다양한 사역을 준비합니다. 무엇인가 나눌 것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전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선교지를 방문한 이후 대부분의 지체는 자신이 준비한 것이 그리 대단한 것



이두희 안수집사  
성동·광진교구

이 아니라는 사실과 함께 자신이 그리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 현지인들에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있었고, 그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대학부 지체들은 그들을 보면서 한없이 겸손해지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합니다.

셋째, 대학부 지체들이 짧은 기간의 선교여행을 통해 동역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더욱더 친해지게 됩니다. 참여하는 지체들은 선교를 가기 전 약 6주간의 워크숍과 1박 2일의 수련회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며 팀워크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어려움과 장애물을 만나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상의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 되는 친밀한 선교공동체가 되어갑니다.

한편으로는 선교비전트립에 관해 느끼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대학부의 선교 봉사는 해마다 선교지가 바뀌기 때문에 일회성 사역의 형태를 취하는 데서 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다녀온 선교지와와의 협력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둘째, 선교팀의 사후 모임을 1년 이상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선교지에 대한 정보와 기도 제목 등 인프라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대학부 선교비전트립에 바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 사역지를 정해 5년 이상 지속하여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지로부터의 기도 제목으로 매달 정기적인 기도 모임을 하며, 선교지에서 필요로 하는 물질을 후원하고, 현지인들에 대한 개인 후원 등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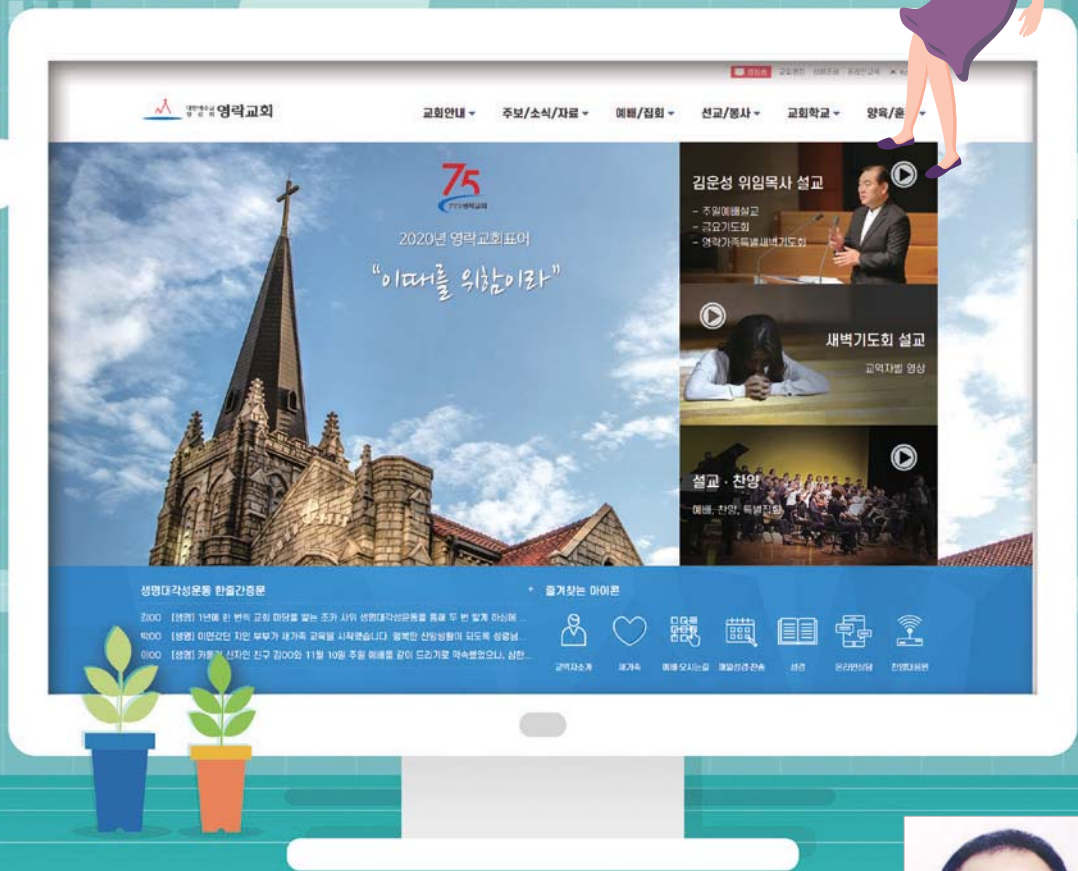
둘째, 한 해의 선교비전팀을 6개 이상 만들어 동시에 파송하는 것입니다. 대학부의 출석 인원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선교비전트립을 지원하는 지체가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 10여 명 내외로 구성된 팀을 인도,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 여러 지역으로 동시에 파송하는 것입니다. 재정적 뒷받침과 책임교역자의 탄력적 운영 등을 통해 점차 팀의 수를 늘려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세계를 품는 영락 대학부를 꿈꿉니다. 젊은 시절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에 동참하는 수단으로 선교만큼 훌륭한 것이 없습니다. 영락교회 대학부가 세계를 무대 삼아 종횡무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영적 거목으로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남**





##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새 단장을 했어요!



교회 홈페이지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자로 이뤄진 이번 개편은 방문자와 홈페이지 간 의사소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디자인과 메뉴를 통합하고 단순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김호진 안수집사  
IT미디어부 차장

## 질서 있는 이미지와 교회 방향성의 구축

이번에 개편된 홈페이지는 교회의 목회 방침을 지원하는 도구의 역할을 강화하고 그간 운영하며 취득한 접속통계를 바탕으로 사용빈도가 높은 메뉴를 메인 페이지에 선별적으로 노출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영락교회의 이미지와 방향성을 나타내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또 최근 모바일을 통한 홈페이지 접속이 늘어난 추세에 발맞추어 PC와 모바일 양방향을 이용하는 방문자가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신 트렌드에 부합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추었습니다. 이를 위한 반응형 웹을 통해 다양한 크기의 단말기 환경에서 최적의 디자인으로 구현되도록 개편했습니다.

시각적으로는 교회의 CI 색상과 보조 색상 등 단색 위주로 그래픽 색감을 단순화했습니다. 각 하부 메뉴와 아이콘은 메가 메뉴(상부 메뉴와 하부 메뉴가 동시에 보이도록 하는 방식)로 카테고리화해 디자인과 편의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도록 했습니다.

말씀·설교·목회 방침을 중심으로 하기 위해 메인 페이지 상단을 설교 중심으로 배치했으며, 목회 방침에 따른 교회 행사가 메인 배너에 상시 노출되도록 개편했습니다. 질서 있고 역동적으로 이미지화하면서 중요 요소들을 강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메인 메뉴가 축소되었지만 한 번의 클릭으로 관련 하부 메뉴가 나타나도록 간소화했습니다. 부서 배너는 중간 서브 배너로 이동했으며, 기존의 하부 소형 배너는 문자로 대체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 운영된 교회 홈페이지는 방문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정보를 메인 페이지에 최대한 많이 나열해 최소의 클릭으로 필요한 정보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의를 강조했습니다. 기존 방식이 익숙한 방문자는 개편된 홈페이지가



익숙해질 때까지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시대적 흐름에 맞는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말씀 중심의 목회 사역, 행정 지원, 정보 제공 등의 다양한 기능과 함께 교회의 발전적인 이미지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0년 새해에 완성도 높은 새 홈페이지를 선보이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수정할 부분을 발견하시면 IT미디어부로 즉시 알려주십시오. 조속하게 조치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IT미디어부의 사역을 위해 늘 기도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시는 성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남**

# 장년 신앙 성장을 위한 필수과정

## 핵심 5개 과목 - 성경·성령·예배·기도·전도

우리 교회는 2019년 제자양육훈련부를 신설하고 모든 장년 성도들이 체계적인 신앙성장로드맵에 따라 성숙한 신앙의 뿌리를 내려 믿음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양육과 훈련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교회는 영·유아에서 청년까지의 신앙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장년 성도들의 신앙교육을 담당하는 '제자양육훈련부'의 이원화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김홍범 안수집사  
제자양육훈련부 차장



### 신앙성장로드맵

- 1단계: '주님 만나기' 위한 새가족 과정
- 2단계: '주님 알아가기' 위한 양육 과정
- 3단계: '주님 따라 살기' 위한 훈련 과정
- 4단계: '주님 섬기기' 위한 사역 과정
- 5단계: '주님 제자 삼기' 위한 재생산/계속교육 과정

우리 교회는 새가족으로 시작해 교회의 리더로 성장하는 과정을 위해 모든 성도의 양육과 훈련을 위한 '신앙성장로드맵'을 구축했다.

5단계의 신앙성장로드맵 중에서 2단계 '양육과정'은 제자양육훈련부가 직접 운영한다. 2단계 양육과정은 '핵심과정'과 '일반

과정'으로 나누며, 핵심과정은 5개 과목(성경·성령·예배·기도·전도)을 총 40주에 걸쳐 수강하고, 각 과목은 매주 한 시간씩 8주 일정으로 운영한다. 핵심과정 5개 과목은 그리스도인의 기본 신앙과정으로서 올해부터 새롭게 운영한다. 기존에 성경아카데미에서 운영해 오던 성경반은 일반 과정으로 구분해 제자양육훈련부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를 제외한 각 제직 부서가 담당하는 모든 교육은 우리 교회 신앙성장로드맵 5단계 중 해당하는 적정 단계를 각 부서에서 결정하고 이를 제자양육훈련부로 통보해, 해당 내용이 우리 교회의 '제자양육훈련체계도'로 만들어져 모든 성도가 체계도를 보면 어느 부서에서 어떤 교육을 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단계 핵심과정: 영락교회 장년교인의 신앙교육 필수 과정

영락교회 장년 교인은 예수님의 참제자가 되기 위한 2단계 핵심과정 5개 과목을 필수적으로 수료해야 한다. 우리 교회는 2019년 2월 7일 당회 의결사항으로 제자양육훈련 핵심과정 5개(성경/기도/성령/예배/전도) 과목 수료를 교회 직분(장로/안수집사/권사) 추천의 기본자격요건으로 정했다. 2019년에 이러한 교육과정을 신설했으므로 실제 직분 추천자격 부여는 2년간(2019~2020년)을 유예기간으로 설정해 2021년부터 시작하도록 했다. 2020년에는 가능한 많은 영락의 성도들이 핵심 5개 과목을 수강해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로 양육되어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 소그룹 리더 훈련: 제자양육훈련 3단계 과정



목요양육훈련집중반은 18개 전 교구의 교역자와 함께 1박 2일 국내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사진은 여수 애양원교회.

제자양육훈련의 2단계 핵심 5개 과정을 모두 수료한 성도에 한해 3단계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료 조건도 3단계 훈련과정이 2019년부터 시행됐으므로 향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제자양육훈련 3단계 소그룹 리더 훈련은 매주 한 시간씩 8주 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2단계 핵심과정과 3단계 소그룹 리더 훈련을 포함하는 2, 3단계 ‘목요 집중과정’을 1주 2시간씩 25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는 당일 또는 1박 2일 일정의 국내 성지순례도 포함한다.

## 일반과정

장년 성도들의 양육훈련을 위한 일반과정은 필수과정은 아니지만,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구약, 신약, 3040, 성경통독, 성서지리, 외국어 성경 과정, 성경적 경제생활 배우기 등으로 운영된다.



##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 되기

김운성 위임목사는 2018년 우리 교회에 부임한 뒤 '제자'를 주제로 한 주일설교를 11주 계속했다. 이처럼 제자됨을 중심에 둔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은 제자양육훈련 핵심과정 5개 과목을 이수함으로써 신앙의 생명력을 살리고 영적 동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 됨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 2019년도 제자양육훈련의 열매

우리 교회의 장년 신앙교육이 본격적인 제자양육훈련 체제로 이루어진 첫해인 2019년에는 담당 부서인 제자양육훈련부가 신앙성장로드맵의 2단계 핵심과정(5과목/11개 반)과 일반과정(10개 반), 3단계 훈련과정(소그룹 리더 훈련)으로 나누어 성경반을 운영했다. 이 중, 2019년에 처음 개강한 2단계 핵심과정은 우리 교회 장년 신앙교육의 필수과정으로 3월 10일(주일)부터 12월 1일(주일)까지 총 32주간(4분기)에 걸쳐 진행됐다. 핵심 과정에는 장로 19명, 안수집사 82명 등 각 분기(8주) 650여 명이 교육에 참여해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신앙을 교육받고 참다운 제자로 양육되며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성장하기를 결단했다.

2019년도 수강생은 전체 제직 7,083명(요람 기준) 중 7.8%이며, 2020년부터 전 교인의 제자양육을 위해서 전체 제직이 출석 수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독려가 필요하다. 참고로, 44명(장로 1명, 안수집사 5명, 권사·집사 28명, 일반성도 6명, 은퇴자 8명)의 성도가 핵심 5개 과목을 모두 이수했다.

### ▶ 2019년 2단계 핵심 5개 과목 분기별 참석자 현황

구분	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누계	
		등록	수료	등록	수료	등록	수료	등록	수료	등록	수료
2단계	핵심과정	793	613	797	671	828	667	844	697	3,262	2,648
3단계	훈련과정	41	36	21	13					62	49
합 계		834	649	818	684	828	667	844	697	3,324	2,697

한편, 2·3단계 집중과정인 목요집중반은 지난 11월 29일(목) 오전 10시 30분 드림홀에서 수료자 92명이 참석해 총 25주 양육과정을 이수하는 수료식이 있었다. 수료식에서 김운성 위임목사는 우리 교회 최초로 신앙성장로드맵 2단계 핵심과정과 3단계 소그룹리더 훈련과정을 이수한 수료생들에게 “각 교구에 나아가 소그룹 리더로서 우리 교회 부흥의 초석이 되어 주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을 전했다. **만남**

### 영락교회 신앙성장 로드맵 및 제자양육훈련 체계도

단 계	과 정	담당 부서	교육 내용	필수 과정
1단계: 주님 만나기	새가족과정	새가족부	새신자교육 신앙성장교육 세례교육	
2단계: 주님 알아가기	양육과정	↓		
		제자양육훈련부	<b>핵심과정</b> 성경 성령 예배 기도 전도	
		제자양육훈련부	<b>일반과정</b> 구약/신약/3040/성경통독/ 성서지리/외국어성경/ 성경적경제생활배우기	
		북한선교부	<b>부서전문과정</b> 복음통일학교	
		상담부	상담대학(2년)/결혼준비교육 아버지학교/어머니학교/ 시부모장인장모학교	
		목양부/예배부	말씀묵상수련 큐티학교	
3단계: 주님 따라살기	훈련과정	↓		
		소그룹전담부	소그룹리더훈련 리더 아카데미	
		전도부	전도폭발훈련	
		선교부	YMTS/MFE	
		교육부	교사교육	
		목양부	예배자훈련 기도자훈련 제직교육	
4단계: 주님 섬기기	사역과정	↓		
		소그룹전담부	교구/구역/소그룹섬김	
		상담부	상담/가정사역	
		사회봉사부	사회봉사섬김	
		자원봉사부	섬김사역	
		새가족부	새가족섬김	
5단계: 주님 제자삼기	재생산/계속 교육과정	↓		
		제자양육훈련부 목양부	주제별 특강/세미나 개설 향존직피택자교육	

##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내 기도 들어주는 주님

먼저 제자양육훈련 2단계 핵심과정 다섯 과목을 모두 수료하고 이렇게 간증 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에 소그룹제자훈련을 수료한 이후 주로 제직부서 봉사만 하다가 올해는 교육을 좀 더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던 차에 새로운 체계적인 양육과정이 생긴다는 소식을 듣고 설레는 마음으로 얼른 등록했습니다.

1분기에 '기도'와 '성령', 2분기에 '전도'와 '예배', 그리고 3분기에 '성경' 과목을 들었는데 일부러 계획했던 것은 아닙니다. 주중에 인터넷으로 8반을 신청해 두었는데 주일에 우연히 친한 언니들을 만났습니다. 언니들 역시 수강 신청하러 가던 길이어서 같이 열심히 공부하기로 의기투합했고, 아직 자리가 남아 있던 4반을 또 신청했습니다.

제가 등록한 4반과 8반은 장소는 같았지만, 강의 시간 전후의 시간적 여유 등의 상황 때문인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조원과 함께 차분하게 의견 나누기 좋았던 반과 목사님의 열정 넘치는 강의를 들을 수 있었던 반, 모두 경험할 수 있어서 더욱 재미있었습니다.



장승연 집사  
인천교구  
의료선교부

강의 시간은 오랜만에 고등학생으로 돌아가 수업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주말마다 목사님의 설교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유익했습니다. 강의를 끝나면 조원들과 함께 그날의 주제와 관련된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자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운 점 등을 이야기하고 공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더 풍성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조원들의 나이가 비슷했고 친한 언니들과 같은 조가 되어 더 편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섯 과목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과목은 맨 처음 들었던 '기도'였습니다. 마침 기도대각성운동 시기와 겹쳐서 더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주일학교 다닐 때 기도하는 법을 배운 이후로 내가 기도를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가끔 궁금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서 나의 기도에 대해 점검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기도 중에 늘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훈련을 위한 과제를 마친 뒤에 가졌던 '최근에 받은 기도 응답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보기' 시간에는 당시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한 어느 집사님이 속히 회복되시기를 기도한 후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다는 이야기, 동생이 교회에 출석하도록 기도한 후 동생의 친구가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동생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는 이야기 등 각자의 응답받은 경험들을 나누면서 너무나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나의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미 응답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서 전에는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중보기도를 하는 것도 좀 쑥스러웠지만, 이제는 교제를 나누다가도 그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떠

올라서 중보기도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기도로 구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배웠던 '성령' 과목, 조원들과 함께 노방전도를 나가보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던 '전도' 과목, 주보를 보면서 예배의 요소와 각 순서의 의미를 생각하게 된 '예배' 과목, 성경 이해를 깊게 해준 '성경' 과목 등 다섯 과목으로 구성된 훈련과정을 큰 은혜 가운데 교육받으면서 저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좀 더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양육과정에 언제나 함께하셨고, 전 과목을 개근으로 수료할 수 있도록 건강과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배운 대로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매주 열심히 강의해 주신 목사님들과 각 과정이 잘 진행되도록 애써 주신 제자양육훈련부와 각 반의 섬김이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양육과정을 듣지 못하신 분들은 꼭 들으시고 처처럼 많은 은혜 누리며 신앙이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남**



## 끝없이 부족합니다

십여 년 전, 이전 구역장님께서 정년이 되어 미흡한 저를 구역장으로 추천하시고는 데리고 다니며 실습시키셨습니다. 당시에 직업이 있던 저는 업무용 가방을 들고 다니며 구역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10교구 12구역은 강북삼성병원에서 사직터널을 지나 사직동, 신문로, 세종로까지 담당합니다. 시내 한복판인 이곳에 지금은 열세 가정이 있습니다. 최근 강북삼성병원에서 사직터널까지 재개발이 되어 단독 세대인 여섯 가정이 이주하셨지만 교적에 그냥 남아계십니다. 거주지에 맞는 교구로 정리해 드릴 수도 있지만 어렵게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 익숙해지실 때까지 변화를 드리면 안 될 것 같아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직장에 다니시는 가정, 투병 중인 가정으로 구성된 저희 구역은 지금은 구역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종이 각지가 먼저 생기고 그 안에서 콩알이 생겨 여물어 가듯이 충실한 교회 생활을 통해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 따름이 있는 결실을 볼 것을 확신합니다. 구역예배 또한 교회 생활의 일부이기에 저는 대안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중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 ★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영락교회 성도로, 또 구역원으로 소속감을 품고 교회 생활을 잘하실 수 있을까?
- ★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을까?
- ★ 우리 구역 식구가 어떤 분이 계신 줄은 아셔야 하지 않을까?
- ★ 구역장으로서 식구들의 형편이 어떠하신지 어떤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 알고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김경희 권사  
종로·성북교구 12구역장



그래서 저는 3년 전부터 다른 방법으로 구역예배를 시도해봤습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각 한 번씩을 제외하고 매월 첫 주 오전 8시 40분부터 9시 50분까지 영락 카페에서 만나서 근황과 기도 제목, 응답 받으신 기도 등을 나눕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은 방문이나 전화 심방으로 기도 제목들을 정리해서 교구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숙제로 책상 위에 놓아드립니다.

구역예배 말씀 대신 일주일에 4~5회 오전 8시경 그날의 말씀을 휴대폰 문자로 보내드리고, 3월과 9월 첫 주 3부 예배 후 함께 식사하며 교제합니다. 이 자리에 모두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을 활용하여 교회 행사와 교회의 여러 가지 활동을 소개하고 구역 현황, 구역원의 애경사, 기도 제목 등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만남의 방식을 통해 한 구역원께서 교회의 여러 가지 활동에 열심히 참석하게 되어 즐겁다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먹했지만 이제는 많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안타까움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구역예배를 드리던 시절, 어려운 일도 겪었습니다. 어느 날 등기 속달로 두툽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구역 식구 중 한 분이 보내신 편지였습니다. 구역장(저입니다)이 사람을 차별하니 담임목사님께 편지를 쓰시겠다며 이제부터는 『만남』도 넣지 말고 심방도 오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전화를 드렸더니 바로 끊으셨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정말 그랬나?’ 하고요. 남다른 젊은 시절을 곳곳이 보내신 분이라고 늘 존경했던 분이었는데... 하나님과 저 자신에게 부끄러움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는, 그분이 어찌하시든 개의치 않고 『만남』 넣기 등 제가 할 일을 변함없이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바깥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쓰러지셔서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암 진단을 받으셨고, 수술 전 심방 받고 싶으시다고. ‘아, 그거였구나. 내가 남달리 대해드린 것이 아니라 예민해지신 컨디션 때문이었구나’ 경솔하게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역장으로서의 십여 년을 정리해 보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다고 여겨져 매우 부끄럽습니다. 남은 날 동안, 부족하다고 여기는 만큼 더 기도하며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영락교회 18개 교구 모든 구역 식구 한 분 한 분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소망이 되어 어렵고 힘들고 지쳐가는 삶과 상황 속에서 평안을 누리시며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만남**

# 따르릉! 영락의 전화입니다

- 상담대학을 마치며



김은경 권사  
강남교구  
상담대학 2019 하반기 졸업

드디어 영락교회 상담대학을 수료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공부하는 즐거움(?)'으로 지난 2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빨리 지나갔습니다.

교회 안의 다양한 봉사활동 중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한 준비(교육) 기간이 가장 긴 봉사 중의 하나가 전화 상담일 것입니다. 2년간 총 4학기(학기별 16주, 총 8과목)의 상담대학을 수료하고(표1 참조), 한국목회상담협회에서 주관하는 기독교 상담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처럼 기나긴 과정을 거쳐야 했기에 더욱 의미 있고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상담대학 수료는 영락교회 교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혜택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지요.

### 첫째, 기독교 상담 분야의 최고 권위자의 강의

지난 2년간 총 8분의 교수(목사)님들께서 각 해당 교과목의 학문적 이론은 물론이고, 목회 현장 또는 유학 시절 전문상담가로서의 생생한 경험, 그리고 실제 상담센터 운영사례 등 생동감 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 둘째, 강의록과 상담 관련 전문서적 제공

강좌마다 강의자가 정성껏 준비한 강의록뿐만 아니라 관련된 전공 서적들을 나누어주셔서, 이들 책으로 채워지는 책꽂이를 바라보기만 해도 흐뭇했습니다.

### 셋째, 저 자신에 대한 치유와 힐링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돌볼 수는 없습니다. 2년간의 상담 수업을 통해 자신에 대한 성찰, 즉 저의 내면세계에 잠재해있는 상처를 발견하게 되었으며, 수업을 통해 이를 치유해가는 과정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 넷째, 가족관계 및 자녀 양육의 재훈련

생애 초기에 양육자(주로 엄마)와 형성한 관계가 자녀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대상관계이론(object relations theory) 등을 학습하면서, 엄마로서 지내온 날에 대한 후회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상담의 기본이 되는 ‘경청(listening closely)’과 ‘공감(empathy)’을 기반으로 한 대화법 훈련을 통해 늦었지만, 저 자신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 다섯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작은 등불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지만, 작게나마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찬양의 가사 그대로 “♫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 ♪”

알차고 유익한 2년간의 교육과정과 훈련을 마쳤지만, 아직도 떨리는 마음은 여전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를 위로하는 목소리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표1〉 상담대학(2018, 2019년) 개설교과목 및 강사

년도		교과목	강사
2018년	전반기	정서심리와 목회상담	이희철 교수(서울신학대)
		상담의 기본기술	현상규 교수(백석대)
	하반기	현대상담이론	문희경 교수(백석대)
		기독교상담학	손운산 교수, 노항규 교수
2019년	전반기	대상관계 이론과 신앙	김기철 교수(배재대)
		이상심리학 및 상담의 실제	여한구 교수(국제신학대학원)
	하반기	인간이해와 발달 심리학	노항규 교수(한일장신대)
		집단 및 위기 상담	하재성 교수(고려신학대학원)



## 감사함이 넘쳤던 전도폭발훈련

저는 청년부 꿈꾸는 땅 소속으로, 이제 막 전도폭발훈련 1단계를 수료했습니다. 지난 3개월의 훈련과정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함에 대해 깊이 경험했던 시간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모태신앙으로 성장했지만, 말씀도 믿음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저 자신이었기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항상 나중 일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말씀이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말씀을 제대로 모른다는 이유로, 나 때문에 신앙이 잘못 세워질까 하는 두려움을 핑계로 외면 아닌 외면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나중에 훈련하게 될 일들은 생각도 못 한 채, 고민도 없이 신청했습니다.

첫 시간 출발하는 날부터 영적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하은 성도  
청년부

귀찮아지는 마음에 갈등하며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에, 훈련생 대표로 선서를 할 수 있겠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수많은 훈련 참가자 중에 왜 내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 흔들리는 저를 보시고 가장 연약한 사람을 택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붙들고자 하시는지, 저를 사랑하시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함도 잠시, 가벼운 마음에 즉흥적으로 신청했던 전폭 훈련은 암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체계적인 훈련에 신청한 것을 후회하려던 순간, 첫 시간에 선보인 풀 복음 제시 속 질문들은 저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를 시작으로 은혜, 인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등에 대한 부분은 용어만 익숙했을 뿐 거의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추상적으로 알고 있었는지, 알맹이 없이 쪽정리로만 지내왔는지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조급함에 스스로 하나님을 원하는 대로 착각하며 마음대로 살아왔고, 믿음이 얇은 신앙 탓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용기조차 없는 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질문들에 대한 명쾌한 대답과 예시를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

지 다시금 깨닫는 기회를 주신 것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 오해했던 것을 회개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훈련에 임해 수료 과정까지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훈련받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감정을 느꼈지만, 무엇보다도 감사함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먼저 이 훈련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해 불러주셨다는 것에 감사했고, 먼저 훈련된 자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를 훌륭하신 그룹장님과 훈련자님을 통해 보여주셔서 감사했고, 끝까지 훈련을 함께 이겨나갈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했고, 매번 ‘공개 보고’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복음 전도의 기적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서울역 노방전도입니다. 편견과 걱정으로 출발했던 노방전도는 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조원들과 함께 노방전도를 가던 날, 무섭고 극단적으로는 폭력적일 수도 있을 거라는 제 편견은 바로 깨졌습니다. 여러 전도자를 통해서인지 생각보다 많은 분이 하나님에 대해 거부감없이 받아들이는 모습이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날은 우리 말고도 다른 교회에서도 찬양과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많은 분이 찬양을 따라 부르고 주기도문을 따라 하는 모습, 심지어, 간식을 드린다는 전제였지만, 다른 교회에서 요청하시는 암송 구절을 열심히 외우시려고 줄 서시는 모습은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외에도 먼저 우리에게 와서 기도해달라



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에게 좋은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서 감사찬양과 기도가 절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웠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은 상대방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가 아닐 것이라고 먼저 판단했던 저의 교만한 모습은 공개보고 시간과 노방전도를 통해 바뀌게 되었습니다. 상식을 뛰어넘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받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후회했을까 할 정도로 유익한 내용이 무척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와 한없는 사랑을 다시금 느끼게 되어 감사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친구, 지인까지 주변에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먼저 기도로 나아가고, 훈련받은 대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며,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남**

## 어머니 친구분의 전도가 30년 만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보호,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귀한 간증 자리에 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120일 생명대각성운동 기간에 영락교회에 방문해 등록까지 하게 된 김경애입니다. 저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 예수님을 모른 채 어린 시절과 청년기를 보냈습니다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불신 가정에서 자란 저를 예수님께서 이미 아시고 사랑하시어 교회로 인도하시고자 많은 사랑의 전도자들을 보내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제게는 예수님과 교회는 너무도 먼 낯선 나라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중·고등학생 때 집에 자주 오셨던 백선자 권사님. 어머니 친구 분이셨던 백 권사님은 덕으로 돌아가실 때마다 신을 신으면서 “경애야, 우리 영락교회에 와~ 우리 교회 오면 너무 좋아~”라고 짧지만 강렬하게 전도하셨습니

다. 그분의 밝은 음성 때문인지, 전도받을 때마다 좋은 기운이 전해져서 저의 기분도 덩달아 좋아지고 그날은 왠지 집안 분위기도 환해지며 생기가 넘치는 것 같아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린 학생이던 저는 어머님 친구분의 전도에 그냥 예의상 “예~”라고 대답만 하고 그 전도의 울림은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고 일상을 바쁘게 살다가 가끔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이상하게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교회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이 들곤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또한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때는 워낙 불신 가정 속에서 자라온 환경의 영향이 컸던지 ‘에이~ 내가 무슨 교회를... 더군다나 그렇게 큰 영락교회를 어렵고 불편해서 어떻게 가...’라고 잠시 생각하다 곧 잊고는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성인이 된 후 감사하게도 소중한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다니던 교회를 사정상 옮겨 새로이 섬겨야 할 교회를 놓고 고심하며 기도하던 중, 오래전 중학생이던 제게 영락교회로 전도하시던 백 권사님에 대한 좋은 기억이 떠올라 속스러워도 용기 내어 전화를 드리고 신앙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30여 년 전 권사님을 통해 주신 “경애야, 우리 영락교회에 와~ 우리 교회 오면 너무 좋아”라는 짧지만 강한 전도의 말씀에 기쁨을 느꼈던 어린 심령 속에 심어



김경애 성도  
서대문·은평교구

진 작은 전도의 씨앗을 잘 자라게 하시어 30여 년이 지난 이때 영락교회로 인도해 주셨다는 확신이 듭니다.

새가족 등록 후 4개월 동안의 영락교회에서의 저의 신앙 생활은 그가 전했던 말씀대로 참 좋았습니다. 5주간의 새 가족 교육, 제자양육 2단계 핵심과정의 새가족반에서 신앙기초교육과 또한 은혜로운 수요일예배, 금요일예배, 주일예배, 특별 새벽기도회와 최근 수요성탄감사예배까지 풍성한 은혜와 감동이 있는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의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있는 영락교회는 참 좋은 교회이며, 낯선 새가족도 사랑으로 품어주며, 좋은 것을 베풀어주시는 예수님을 닮은 ‘착·한·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장신대 콘서트 콰이어와 함께 드리는 성탄예배 때, 왈칵 눈물이 나며 “아, 아름다운 감동의 영락교회 예배에 제 가족, 특히 연로하신 친정 부모님인 김한조 아버지와 이영순 어머니가 함께 참여하여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날이 어서 속히 오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예배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카이로스! 바로 하나님의 때인 9월 1일 주일! 생명대각성운동이 시작되는 그 첫 주일에 30여 년 전에 전도받았던 제가 영락교회의 새가족으로 등록하게 되었다 오늘 이 영락교회에서 저의 간증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꼭 하나님의 때에 제 친정 부모님을 영혼 구원의 자리인 영락교회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꼭 찾아와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항상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말씀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꼭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증을 마치면서 이번 생명대각성운동 기간의 모든 과정을 기도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겨주신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항상 영락교회를 위해 애쓰시고 헌신하시는 김운성 목사님 외 모든 교역자님, 그리고 제직 여러분의 정성과 사랑에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만남**

## 암투병~복직 중에 전도의 꿈 키워주신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는 7교구 석소연입니다.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처음 다닌 교육기관은 동네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유치원에서 자연스레 찬양과 기도를 배우며 교회 문화에 친숙하게 자랐지만,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는 130년 전 선교사가 세운 미션스쿨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사춘기의 끝자락과 입시라는 틀 안에서 매주 전교생이 함께하는 예배는 그저 부족한 잠을 보충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찬양하는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되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실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고3

때는 친구들과 함께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 후 4년간 채플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졸업할 수 있는 대학에 진학했고 임용시험을 앞둔 4학년 때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첫 교직 생활을 시작한 학교 역시 미션스쿨인 보성여고였습니다. 4개월이라는 짧은 근무 기간에 학교에서 일어났던 큰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을 통해 저 역시 미션스쿨의 교사가 되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소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영락중학교 과학교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의 뜨거움과 열정으로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던 저는 결혼과 출산으로 2년 여를 휴직했습니다. 복직을 준비하던 2017년 저는 몸의 이상을 감지하고 검사를 한 결과 유방암 3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시 제 딸은 세 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원망의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도 잠시였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변 분들과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많은 분의 위로와 기도로 수술 후 빨리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작은 손으로 엄마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 엄마 안 아프게 해 주세요”라고 매일 기도하던 세 살 딸의 기도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위로로 원망의 마음은 눈 녹듯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34회에 걸친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 등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



석소연 집사  
서대문·은평교구





고 이 시간이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가까워지는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기간 저는 교회 어린이집에 다니는 딸의 등·하원을 위해 매일 교회에 출근해 기도실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주중 예배 및 권찰 공부, 여전도회 활동 등에 순종의 마음으로 적극 참여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기도로 나를 탄탄하게 만드는 하루하루 은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저는 5년간의 휴직을 마무리하고 영락중학교에 복직했습니다. 복직을 앞두고 5년 전과 다른 교육 환경에 대한 걱정과 두려운 마음이 많았고 사춘기의 절정에 있는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을 과연 잘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클수록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명렬표를 보며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복직을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각양각색의 개성 강한 영락중학교

2학년 4반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5년 전과 가장 많이 달라진 점 중 하나는 교회에 출석하는 아이들이 현저히 적은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복직 첫 주 아이들을 파악하기 위해 면담을 하며 한 명 한 명에게 축복 기도를 해 주었고 조·종례 때도 이전처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며 차츰 새로운 학교생활에 적응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사춘기 한가운데 있는 우리 반 아이들의 모습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조회 때 “성경책 펴고 말씀 읽자”고 말하면 아이들이 성경을 같이 찾아 큰 목소리로 읽었고, “기도합시다”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서로 자신이 기도하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보통의 중2아이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마침 그 무렵 우리 교회는 생명대각성운동을 시작했고 문득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다 한번 오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지나가는 말로 “선

생님 교회에 한번 놀러 올래?”라고 얘기했는데 놀랍게도 저희 아이들의 반응이 무척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이들을 교회에 초대하는 계획을 구체화하고 주변 분들에게 이를 말씀드리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학부모 상담으로 오신 반 대표 어머니께도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후원과 도움 가운데 25명의 학생이 영락교회에 방문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반 대표 어머니께서 기도 후원과 함께 어머니들을 독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지각을 무척 많이 하는데, 놀랍게도 1명의 학생을 제외하고는 모두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성 강한 아이들이라 무척 소란스러웠을 텐데 함께 예배드렸던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귀하게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이신 위임목사님께서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사진도 찍어주시고 방문을 환영해주셨습니다. 모든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학교 현장에서 복음의 열매를 당장 맺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처럼 보이고 열매는커녕 복음을 전하기도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영락중학교와 같은 미션스쿨은

전교생이 모두 모여 매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아이들은 즐기기도 하고 탄창을 피우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가 많습니다. 분명 복음의 씨앗은 미션스쿨 안에서 예배를 통해, 기독 교사를 통해, 믿는 학생들을 통해 뿌려지고 있습니다. 아마 130여 년 전에 파란 눈의 그분도 우리와 같았을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만 당장 열매 맺는 것이 없어 낙심되었을 것이고 포기하고 싶을 만큼 지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뿌린 씨앗으로 저는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기독 교사가 되어 아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하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늘 저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 당장 절망의 상황으로만 보이는 것들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 제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나누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만남**



##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새가족 환영 등록일(2019년 12월 15일~2020년 1월)

교구 : 70은 고등부, 77은 국제예배, 80은 대학부, 90은 청년부  
구역 : 000은 가동록, 99는 보류, 888은 교육부

등록일	이름	교구	구역
2019. 12. 15	나영심	13	020
	박찬열	09	061
	김성호	06	048
	소병남	09	061
	최승관	04	005
	이부덕	03	031
	변수현	01	024
	김영준	14	048
	차은광	02	048
	최단비	04	005
	이은애	17	038
	박지윤	17	037
	최은재	17	037
	이다원	06	069
2019.12.17	오숙자	06	048
	이다윗	17	014
2019.12.20	정평화	01	019
2019.12.22	조계덕	02	045
	지은복	02	045
	이희중	18	022
	전유리	04	064
	김준구	07	000
	한희욱	03	016
	손다인	11	037
	김라임	11	000
2019.12.27	오선교	08	077
	권오용	05	031
2019.12.29	이봉일	10	000

등록일	이름	교구	구역
2019.12.29	박경우	16	000
	이용기	10	000
	김명자	16	000
	김화순	07	000
	조동안	10	000
	염경애	10	000
	한상민	10	036
	성봉근	11	000
	김평주	11	000
	안지현	17	000
	이선영	10	000
	최찬원	10	000
	원승현	13	000
	한충희	07	000
2019.12.30	이정아	02	000
	최혜인	07	000
	윤종현	16	000
	김도형	70	888
2020.01.01	이후림	04	098
	김진우	04	098
	정지혜	04	098
	탁현수	04	098
	강은실	04	098
	안혜민	04	098
	한지향	04	098
	지기원	04	098
	서유리	04	098
	윤형배	04	098

등 록 일	이 름	교 구	구 역
2020.01.01	오한나	04	098
	김은숙	04	098
	전찬욱	04	098
	유엘리사	04	098
	이사라	04	098
	이태선	04	098

등 록 일	이 름	교 구	구 역
2020.01.01	김하준	04	098
	탁윤	04	098
	김하영	04	098
	탁준	04	098
	김하나	04	098
	이로아	04	098

## 유아세례를 축하합니다

### 유아세례일 세례·입교일(2019년 12월 22일)

이 름	교 구	구 역
안하엘	08	065
이은결	04	046
정은유	18	007
이하람	02	052
김도아	16	047
김예슬	04	033
박도율	04	098
조서연	16	030
김태우	04	022
이예준	04	098
이예서	04	098
김다은	17	004
윤효정	09	028
김시온	11	031
박유온	15	019

이 름	교 구	구 역
정이준	05	046
박주한	17	053
윤하은	11	026
이은찬	04	098
김다희	09	010
이연우	14	036
조은우	04	098
한믿음	10	038
송유나	16	060
이지한	02	038
박예빈	06	054
이온유	17	054
신유리	13	003
우이든	06	040
이지현	02	014

이 름	교 구	구 역
박하연	04	098
정지우	05	005
안하은	08	065
권혁	11	055
안시현	05	053
오태준	13	011
오민준	13	011
전시아	11	002
김나윤	01	019
여서준	06	075
정은우	10	021
한예담	06	043
한지민	02	060
김율	01	007
이다윗	17	014

## 신년예배, 임직식 겸해 드려

2020년 신년예배 및 임직식이 새해 첫날 본당에서 치러졌다. '이때를 위함이라' (예 4:13~14)라는 새해 표어 아래 1부와 2부 두 차례 신년예배에서 성도들은 본당과 부속 예배처를 가득 채운 가운데 새해 첫 예배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렸다.

김운성 위임목사는 '엘림을 떠나는 사람들' (출 15:27~16:1) 제하의 말씀을 통해

"2020년의 모든 상황이 어렵다. 엘림의 휴식을 마치고 신 광야로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심정이지만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면 은혜와 기적을 베푸시며 올 한 해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선포했다.

2부 예배에 이어 진행된 임직식에서는 신임 권사 102명, 서리 남집사 87명, 서리 여집사 140명, 구역장 1,121명, 교사 737명, 찬양대원 1,095명 등이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짐했다.

취재 김경옥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 선교부, 신년기도회로 새로운 선교의 장 열어



지난 1월 9일(목) 저녁 선교부 사역을 위한 기도회가 본당에서 열렸다. 기도회에는 1~4 남선교회와 여전교회 중앙회와 18개 지회 모든 임원, 부부선교회와 올해 새로 시작하는 청년선교회, 선교부 산하 각 자치단체, 소단체 6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선교부는 차동혁 목사를 전담 목회자로 세우고 기도후원팀을

신설하여 선교부 역사상 처음 기도회로 모여 새로운 선교의 장을 여는 자리가 되었다.

김운성 위임목사는 "올 한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자"며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김 목사는 "선교적 교회로서 고난의 십자가 길이지만 오늘의 아브라함이 되어 눈물의 기도와 함께 선교를 잘 감당하는 거룩한 선교적 삶을 살아가자"고 권면했다.

김순미 장로(선교부장)는 "우리 선교 회원들이 이때를 위해 빛을 발하여 부흥의 불길로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를 이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소망한다"고 전하며 기도회에 가장 많이 참석한 중구·용산교구에 포상했다.

취재 김경옥 기자 사진 설경문 집사



## 성탄예배

### ‘평안과 기쁨의 크리스마스’

지난 12월 25일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 감사하는 성탄주일 예배가 올려졌다. 영락교회의 전 세대가 1~3부에 걸쳐 함께한 이날 예배에서는 이 땅, 힘들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했다.



김운성 위임목사는 ‘시므온’이 간절함 가운데 성령의 감동과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눅 2:28~33)을 소개하며 시므온처럼 영락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함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며,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누리자”고 성탄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이날 예배에서는 교육부 학생들의 촛불 점화, 성경 봉독과 고등부연극반의 성탄축하 드라마가 공연됐다. ‘생명의 빛, 세상의 선물’을 주제로 빛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세상에 빛이 되길 다짐하는 기쁨의 이야기를 선했다.

예배 후 베다니 광장에서는 ‘영락 올드boy’의 멋진 하모니카 캐롤연주와 선교부(부장 김순미 장로) 문화선교 소속 ‘타악 퍼포먼스팀’의 난타 공연이 펼쳐져,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선사했다.

취재 박진현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 2019 성탄음악회, 갈릴리찬양대 ... ‘예수탄생’의 오라토리오 선사하다



2019 성탄축하음악회가 지난 12월 24일(화) 저녁 베다니홀에서 갈릴리찬양대 주관으로 열렸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작곡가 김신웅 교수의 창작 성가곡 ‘예수탄생’을 오라토리오로 선보였다. 지휘자 조성환 장로가 이끄는 170여 명의 갈릴리찬양대와 오르가니스트 김우경, 김진의 반주, 오케스트라 ‘알테무지크서울’이 협연했다.

1부 은혜를 받은 마리아의 찬가부터 예수 탄생을 예고하는 곡을 시작으로 2부 다윗의 동네에 예수님 탄생, 3부 동방박사들 경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4부 세상에 비치는 빛에 이어 피날레 곡 ‘말씀이 육신이 되어’ 등 모두 22곡을 들려줬다. 베다니홀을 가득 메운 성도들에게 예수탄생의 기쁨과 감동을 준 이날 음악회는 ‘탄일중’을 앵콜곡으로 함께 부르며 성탄전야를 즐겼다.

취재 김경옥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 293명 제직 은퇴식 거행

지난 12월 29일(주일) 본당에서 찬양 예배와 함께 293명 제직들의 은퇴식이 있었다. 은퇴식에선 원로장로 1명, 장로 1명, 안수집사 13명, 권사 150명, 서리 집사 남 78명, 여 50명의 은퇴자에게 공로패와 감사장을 증정, 그간의 헌신과 수고를 기렸다.

이날 원로장로로 추대된 박순태 장로는 “돌 지난 후 한국전쟁으로 이산가족이 된 후 영락에 모이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락이 생명을 낳아 기르는 교회로 영적 부흥하고, 제직들은 귀한 직분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취재 김경옥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 2020 권사회 헌신예배…102명의 신임권사 축하



지난 1월 12일(주일) 권사회 헌신예배를 찬양예배시간에 드렸다. 홍용희 권사(권사회 회장)의 인도로 시작된 헌신예배는 오정선 권사(권사회 부회장)의 기도, 성경봉독(삼상 10:1~9), 갈릴리찬양대의 찬양에 이어 설교를 맡은 박규성 목사는 “너도 나도”란 제하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 김운성 위임목사가 신임권사 임직식을 거행했다. 신임권사 102명이 오른손

을 들어 선교와 직분에 헌신하고 충성 서약한 후, 권사로 태함 받음을 선포했다. 영상으로 권사회 사역을 소개 후, 김운성 위임목사는 “어려운 사람을 도왔던 다비다처럼 사랑과 섬김을 잘하고, 가정에 평안으로 마음껏 주의 일하는 권사들 되길 바란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홍용희 권사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임직 받은 신임권사를 환영하며,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로, 겸손한 자세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권사로서 충성되게 섬겨 나가며 교회에 덕을 세우는 권사회가 되자”고 말했다. 이에 신임권사 대표 주영신 권사는 “신실한 예배자로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하는 권사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답했다.

취재 김경옥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 한국 교회 신년특새 ‘새해를 말씀과 기도’로

한국 교회가 새해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했다. 서울과 전주 포항 등 전국 6개 교회에서 “주여, 한국교회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소서” 주제로 신년특별새벽기도회가 드러졌다. 6일(월)~11일(토) 새벽 5시 15분~6시에 열린 이번 기도회는 CTS생방송으로 전국 각지로 중계되어 우리 교회는 선교관에서 영상으로 드러졌다.



첫날인 6일엔 김태영 목사(백양로교회), 황세영 목사(전주시온성교회), 민경설 목사(광진교회), 황순환 목사(서원경교회), 김휘현 목사(동일교회), 박석진 목사(포항장성교회)가 설교한 뒤, 찬양에 이어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영성이 회복되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길 뜨겁게 간구했다. 참석지 못한 성도들은 총회 홈페이지나 CTS 채널을 통해 기도회에 참여했다.

취재 김경옥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 총회군선교후원회, 2020년 신년하례 조찬기도회



영락교회 제2여전도회가 후원하는 총회군선교후원회 ‘2020년 신년하례 조찬기도회’가 지난 1월 6일(월)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에서 열렸다. 영락교회의 선교부 군선교팀과 2여전도회 중앙회 임원, 여전도회 연합찬양대 및 총회후원 교역자와 군종목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도회에서 김운성 위임 목사(총회군선교후원회 회장)는 ‘또 하

나의 현실을 보라(행 18:5~11)’는 말씀을 통해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지 말고 또 하나의 현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5명의 군선교사 은퇴 위로식도 함께 열려 ‘청년을 살려야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산다’라는 주제로 합심 기도한 뒤 영락교회가 제공한 조찬을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취재 이재향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 사회봉사부, 월드비전과 연탄나누기 동참

사회봉사부(부장 나선환 장로)는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과 함께 에너지 빈곤 가정 돕기 캠페인에 매년 나서고 있다.

사회봉사부는 1월 11일(토) 중계마을을 찾아 어려운 이웃에게 연탄을 제공, 따뜻한 겨울나기를 도왔다. 난방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정 10가구를 선정하여 연탄 2,000장을 전달한 이 행사엔 중등부 40여명 등 고등부, 대학부 5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사랑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며 기뻐했다. 매년 성탄절 헌금 전액이 이웃돕기 성금으로 쓰여지는데 이 행사에도 지원 되었다.

취재 김경옥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 일반 학생·청년 초청 3대3 농구대회



2019년 12월 29일 영락교회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연계 사역으로 3대3 농구 친선대회가 대광고등학교에서 열렸다. 40여명의 학생과 청년들이 참석 친교를 나눴다. 영락교회 안에서의 하나됨과, 교회 안에서의 친교를 가진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다. 특별히 이 자리에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과 청년들도 초청, 교회 문화를 접하게 해준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하였다.

제공 교육부

### 바로 잡습니다

만남 1월호 22쪽 김순혜 권사 '인천교구'를 '강서·구로·양천교구'로 정정합니다.



## 2020년 목회 분담표(목사)

 <p>백성우 목사 교육 전담 대학부, 교사교육부, 교회교육원</p>	 <p>김태군 목사 13교구(서초) 경조부</p>	 <p>박재현 목사 1교구(강남) 목회행정</p>	 <p>박규성 목사 3교구(성동·광진) 목양부, 권사회</p>
 <p>황광용 목사 9교구(마포·영등포) 예배부, 음악부, 안수집사회</p>	 <p>차동혁 목사 선교 전담 선교부(국내, 해외), 1남/1여</p>	 <p>최승도 목사 4교구(중구·용산) 제자양육훈련부 총괄, 한경직기념사업회, 역사위원회</p>	 <p>김정희 목사 15교구(성남·분당) 사회봉사부, 평생대학, 사회복지재단</p>
 <p>박지운 목사 16교구(고양·파주) 전도부 총괄</p>	 <p>최한운 목사 6교구(강서·구로·양천) 북한선교부, 자유인예배, 할렐루야</p>	 <p>박성은 목사 7교구(서대문·은평) 선교부(군선교, 문화) 2남/2여, 임마누엘</p>	 <p>김충섭 목사 2교구(강동·송파) 제자양육훈련부, 베들레헴</p>
 <p>남정열 목사 10교구(중로·성북) IT미디어부, 홍보출판부</p>	 <p>권혁일 목사 5교구(관악·동작·금천) 영성, 영락수련원 영락기도대, 갈릴리</p>	 <p>김형찬 목사 새가족 전담 새가족부</p>	





조두형 목사  
8교구(동대문·중랑)  
선교부(농어촌, 의료, 청년, 부부),  
3남/3여



전병주 목사  
11교구(노원)  
목양부(제직교육, 교재), 베다니



노대웅 목사  
고등부  
학원선교



최재선 목사  
청년부



강승훈 목사  
12교구(강북·도봉)  
상담부, 가정사역, 시온



탁현수 목사  
18교구(용인·화성)  
제자양육훈련부(소그룹),  
자원봉사부, 호산나



김진우 목사  
17교구(안양·수원)  
친교부, 4부예배,  
갈보리



이후림 목사  
14교구(인천)  
전도부(주중사역), 4남/4여



이영호 목사  
중등부



신주현 목사  
아동부



김윤기 목사  
국제예배부



이정훈 목사  
설악수양관



황재영 목사  
영락기도원



신대군 전도사  
영락수련원

## 2020년 신임교역자 프로필

### 부 목사



탁현수  
장신대 신학  
장신대 신대원  
충신교회(청년, 제직)



김진우  
장신대 기독교교육  
장신대 신대원  
상도교회(교구, 선교위, 세례교육)



이후림  
경희대 사학  
장신대 신대원  
국일교회(교구, 행정)

### 부서 지도 목사



이영호  
중앙대 심리학  
장신대 신대원  
서울드림교회(교구, 중고등)



신주현  
고려대 생명공학  
장신대 신대원  
서울백병원(환우심방, 전도)



김윤기  
장신대 신학  
장신대 신대원  
남가주 동신교회(교육)

### 전임전도사



유태안  
장신대 기독교교육  
장신대 신대원  
영락교회 준전임(교회교육원)



윤희배  
장신대 신학  
장신대 신대원  
산돌교회 전임(소년)

## 2020 제직회



서기 강동호 안수집사



부서기 서승신 권사

## 2020 제직부서 신임 차장(안수집사 및 권사)

### 교육부



강동호

### 북한선교부



박상언



문영환

### 의료선교부



박도준

### 사회봉사부



이진하

### 목양부



강명옥

### 전도부



한봉수



임성기

### 제자양육훈련부



전태성

### 음악부



변계환

### 새가족부



장덕권



김종범

### 상담부



박효진

### 경조부



박상수

### 친교부



조민태



정혜현

### 재정부



김병옥



박봉수

### 서무부



권용호

### 시설관리부



김은형

### 홍보출판부



현재호

### 자원봉사부



양승관



최충권

### IT미디어부



송건의



최현우

### 예산위원회



김광식

### 감사위원회



박형화

## 작가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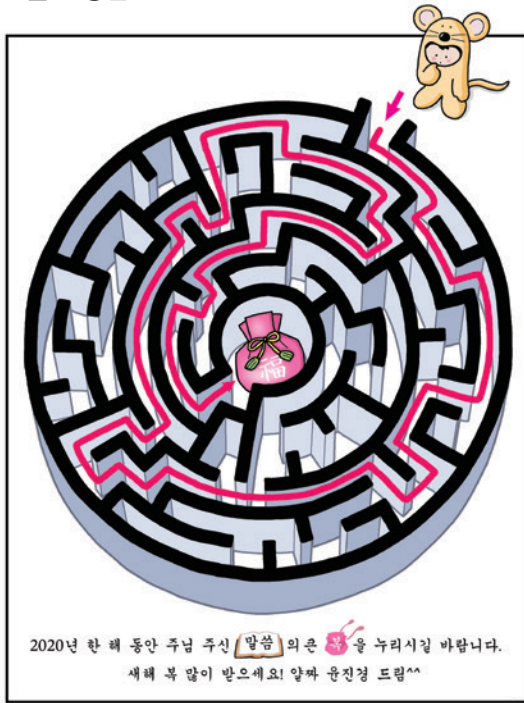
### 삶의 감사, 하나님의 따뜻함과 밝음

아크릴, 종이 반죽, 도자 작업 등과 같이 평면 작업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주제로 작업하다가 5년 전 '유리'라는 재료를 우연히 접하게 되었다. 유리를 주재료로 사용하여 평면 작업과 반입체 작업을 하면서 유리는 내게 또 다른 캔버스가 되었다. 판유리에 가는 유릿가루로 만든 에나멜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 여러 장을 겹쳐서 780도의 가마에서 퓨징(fusing)하거나 캐스팅(casting)하여 만든다. 유리를 재료로 써도 회화 작업이 가능하다는 것이 새로웠다.

유리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유리의 투명성으로 인해 두껍지 않은 2차원의 평면 작업임에도 여러 장의 그림을 겹치는 효과로 공간의 깊이를 보여줄 수 있다. 둘째, 빛을 하나의 구성요소로서 화면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리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유리는 빛을 보여주지만, 빛을 통과시키는 통로 역할을 할 뿐인데도 그 빛을 통해 더욱 분명한 존재감을 느끼게 한다. 예민한 유리의 특성상, 천천히 식혀야 하는 서냉 과정이 잘못되면 작은 흠집으로부터 깨지기 시작한다. 그런 유리를 보면서 인간의 한계와 유한성을 느끼게 된다. 나는 그렇게 깨지기 쉽고 연약한 유리와 같은 존재일 뿐이지만 작품을 통해 이러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 삶의 감사와 빛 되신 하나님의 따뜻함과 밝음이 보이는 맑은 통로가 되기를 소망해본다.

그림·집필 최진희 집사

###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1월호 정답





##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숨은그림찾기** 이 코너는 영락의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놀이로 구성됩니다.

찬양이는 세뱃돈으로 게임기를 살까, 피규어를 살까 신이 나있었는데, 동생 찬송이가 십일조와 감사 헌금을 내겠다고 하는 것을 보며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아래 그림에는 7개의 그림이 숨어있어요. 함께 찾아보세요~  
(자, 코알라 얼굴, 촛불, 컵, 장갑, 야구배트, 바나나)





## 목회력

# 2月

1일(토)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교육부 신년교사기도회
2일(주일)	찬양예배 성찬
2일(주일)~7일(금)	포이메네스 목회자 영성수련
9일(주일)	제직회, 제직부흥회 1차
16일(주일)	제직부흥회 2차
23일(주일)	제자양육·소그룹의 날, 사회봉사주일, 심방준비회
24일(월)~29일(토)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새벽기도회
26일(수)	재의 수요일

## 편집장 레터



지난해 우리 영락교회에서는 기도대각성 운동과 생명 대각성 운동이 강조되었는데 이들 운동은 계속 이어질 것이며 올해 목회표어인 '이때를 위하여!'의 바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신앙 운동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의 모범이 될 것이며, 낙후되어 가는 교회들에 재기의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행하지 않는 간구와 말씀은 무의미합니다. 말씀의 덕은 행함에서 비로소 드러납니다.

2020년 『만남』은 '이때'에 대해 말씀으로써 분별할 것이고, '이때'에 겪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 노력함과 더불어 분명한 응답이 되도록 성도님들과 함께 헌신할 것입니다. 『만남』은 교회와 국가의 예언자적 기능(도덕적 기능) 회복은 물론, 남북문제·인구감소·이단 종교·동성애·진리의 상대성 등 '이때'에 드러나고 있는 각

종 문제에 대한 신앙적 대비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으로써 전도·이웃에 대한 위로와 도움·기도 생활의 일상화로 목회표어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우선 2월 『만남』은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이질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상징적 의미로 가나안 성도)과 청소년기의 영육 간 괴리로 인해 나타나는 우울증, 불안감, 초조 등 크리스천들의 신앙적 모순과 해결방안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비록 『만남』의 형태가 세속잡지와 비교하여 다양성과 화려함에 미진한 부분이 있겠지만, 오직 하나님의 진리 편에 서서 의(義)로써 드러난 필담(筆談)은 말씀 실현의 근간이 될 것입니다.

편집장 이동훈

# 2020년 교역자 목회분담표

■: 목사 □: 전도사 ●: 파트목사 ◎: 준전임 전도사 ○: 파트전도사

예배	예배위원회	■ 황광용 ■ 김진우(4부)	■ 권혁일(기도) □ 신중건(4부)	□ 윤기철 □ 최정규(기도)
	음악부	■ 황광용	□ 조익천(한마음찬양반)	
교육	금요찬양팀	□ 박상엽	□ 신중건	국제예배 ■ 김윤기 ◎ 최재령 ○ 최성은
	교육부	■ 백성우	□ 임민국	사랑부 ● 임평호
교육	영·유아·유치부	□ 서루디아(유치부) ○ 정다운(유아부)	◎ 유엘리사(유아부) ○ 강배나(유치부)	◎ 서유리(영아부) ○ 김영한(유아부) ○ 이사라(영아부)
	아동부 (CebC)	■ 신주현(소년부) ○ 이승용(유년부)	◎ 최혜원(초등부) ○ 권혜빈(CebC)	◎ 조현우(유년부) ○ 임상수(초등부) ○ 강승민(소년부)
	중등부	■ 이영호	□ 이성형	○ 황하은
	고등부	■ 노대웅	□ 백현준	◎ 한지향
	대학부 (베드로부)	■ 백성우	□ 박성울	□ 박상엽
	청년부	■ 최재선	□ 임민국	□ 김성광
	교회교육원	■ 백성우	◎ 지기원	교사교육부 ■ 백성우 ◎ 지기원
	목양부	■ 박규성	■ 전병주	□ 이영욱
교구목양	제자양육훈련부	■ 최승도	■ 김충섭	■ 탁현수(소그룹)
	새가족부	■ 김형찬	□ 이효준	
	전도부	■ 박지운	■ 이후림(주중사역)	□ 진영채
	경조부	■ 김태균		친교부 ■ 김진우
	평생대학	■ 김정희	□ 신중건	상답부 ■ 강승훈
	영락기도원	□ 황재영		설악산수양관 ■ 이정훈
	영락수련원	■ 권혁일	□ 신대균	□ 윤형배
	선교부	■ 차동혁(국내, 해외)	■ 박성은(군선교)	■ 조두형(농어촌, 부부, 청년)
선교	의료선교부	■ 조두형		문화선교부 ■ 박성은
	북한선교부	■ 최한운	□ 김학수	◎ 서신혜(목사)
	학원선교	■ 노대웅		○ 장민희
	1남선교회 1여전도회	■ 차동혁		3남선교회 3여전도회 ■ 조두형
	2남선교회 2여전도회	■ 박성은		4남선교회 4여전도회 ■ 이후림
	안수집사회	■ 황광용		권사회 ■ 박규성
	사회봉사부	■ 김정희	□ 유태완	
	목회행정	■ 박재현	□ 예진용	IT미디어 ■ 남정열
목회행정	자원봉사부	■ 탁현수		홍보출판부 ■ 남정열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 교회역사위원회 ■ 최승도			

## 교구(목사&전도사)

1교구/ 강남	■ 박재현 □ 장운재	10교구/ 종로·성북	■ 남정열 □ 신중건
2교구/ 강동·송파	■ 김충섭 □ 이영욱	11교구/ 노원	■ 전병주 □ 백현준
3교구/ 성동·광진	■ 박규성 □ 어정현	12교구/ 강북·도봉	■ 강승훈 □ 노진석
4교구/ 중구·용산	■ 최승도 □ 진영채	13교구/ 서초	■ 김태균 □ 조익천
5교구/ 관악·동작·금천	■ 권혁일 □ 김성광	14교구/ 인천	■ 이후림 □ 윤형배
6교구/ 강서·구로·양천	■ 최한운 □ 이형진	15교구/ 성남·분당	■ 김정희 □ 예진용
7교구/ 서대문·은평	■ 박성은 □ 심순중	16교구/ 고양·파주	■ 박지운 □ 윤기철
8교구/ 동대문·중랑	■ 조두형 □ 이동규	17교구/ 안양·수원	■ 김진우 □ 최정규
9교구/ 마포·영등포	■ 황광용 □ 박상엽	18교구/ 용인·화성	■ 탁현수 □ 유태완

## 음악부

임마누엘찬양대	■ 박성은	갈릴리찬양대	■ 권혁일
갈보리찬양대	■ 김진우	할렐루야찬양대	■ 최한운
시온찬양대	■ 강승훈	베다니찬양대	■ 전병주
호산나찬양대	■ 탁현수	교회음악아카데미	■ 황광용
베들레헴찬양대	■ 김충섭		

영락화랑

## 새벽기도

The Early Morning Prayer



최진희, Enamelled, Fused Glass, 43×72cm, 2018